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A GIFT IN DECEMBER

가제 : 12월에 도착한 선물

저자 : Jenny Gladwell

출판사: Hodder Paperbacks

발행일: 2019년 10월 1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너무나 낭만적이면서도 끝없이 즐거운 이야기." – 『My Map of You』의  
저자 이사벨 블룸

"따뜻한 찻잔보다, 뜨거운 버터 토스트 한 장보다 더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 「 레드  
매거진」

2017년, 제인 브룩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기자로, 그녀의 잘못이라고는 그저 열심히 일을 한 것뿐이었다. 같은 잡지사에서 일하는 남자 친구인 시몬은 제인이 자신보다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녀를 떠나버렸다. 그 후, 제인은 이제 연애 따위에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점점 마음이 심란해졌고 이를 지켜보던 그녀의 상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녀가 다른 일에 관심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로 출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된다.

1940년, 노르웨이 니베르크스룬트. 젊은 군인 한 명이 노르웨이 하콘 왕과 함께 험난한 숲을 가로질러 노르웨이 국경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콘 왕은 나치 군인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허울뿐인 왕 노릇을 하는 대신 왕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왕과 군인이 떠날 채비를 마치자 군인에게 한 여인이 다가가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는 그녀를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편지하겠다고 말과 함께 잘 지내라는 간절한 당부를 전했다. 이윽고 왕과 함께 차에 올라탄 그는 그녀의 모습이 흐릿해질 때까지 그 여인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다시 2017년, 제인은 편집장 나딘의 요청으로 휴가 차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열리는 한 행사에 대해 취재를 가게 되었다. 그 행사는 전세계 인플루언서들과 언론인들이 모이는 행사로 환상적인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1947년 이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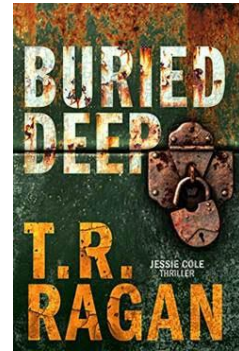
오슬로시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들을 도와준 런던 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매년 11월이면 크리스마스트리를 런던에 선물로 보내는 전통이 있었다. 1940년 나치 군을 피해 노르웨이를 떠나 기적적으로 런던에 도착한 하콘 왕은 런던에 임시정부를 세운 바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주권을 회복한 노르웨이의 오슬로시에서는 매년 오슬로 외곽에 있는 숲인 '숲의 여왕'에서 고르고 고른 좋은 나무들로 웅장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런던으로 보냈다. 이 행사의 핵심은 바로 노르웨이인들이 도시 중심에 모여 런던 시에 선물한 트리를 함께 꾸미는 이벤트라는 데에 있었다.

제인은 상사의 제안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못이기는 척 수락했고 사진작가인 벤과 리얼리티 프로에 출연해 유명인사가 된 언론인 필립, 그리고 그 곳에서 열릴 나무 절단 행사에 초대받은 전쟁 영웅 토마스와 함께 그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인은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토마스를 보며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무를 자르는 의식이 끝난 후, 제인은 토마스에게 다가가 그가 한 멋진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토마스가 무엇인가 마음에 숨기고 있으며 남몰래 알 수 없는 이유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토마스는 그녀에게 하콘 왕의 구출을 도왔던 한 젊은 군인의 사연에 대해 들려주었고 그 군인의 정체는 바로 토마스 자신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었다. 토마스는 제인이 자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자 그녀에게 당시 자신과 왕을 도와 지름길을 알려주었던 '매리트'라는 한 젊은 여성을 함께 찾아보는 게 어떨겠냐고 물었다. 그 여인과 토마스의 사연은 이러했다. 매리트와 그 젊은 군인 토마스는 1940년 어느 날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그 후 그녀는 연락이 끊어지기 전까지 런던에 있는 그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다. 전쟁이 끝난 후, 토마스는 매리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니베르크순트에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없는 사이, 혹시라도 그녀가 그곳에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함께 머물렀던 오두막 굴뚝에 그녀가 자신에게 여태껏 보냈던 편지들을 숨겨두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다. 토마스는 바로 그 편지들을 제인이 대신 찾아다 주기를 바랐고 제인 역시 주최측과 합의한 일정이 틀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결국 제인은 필립과 함께 그 숲 속 오두막으로 찾아가 편지들을 가져왔다. 하지만 제인은 왜 한번도 토마스가 그녀의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왜 굳이 편지들을 그 먼 곳에 숨겨두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제인은 토마스를 도와 매리트를 찾게 될까?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크리스마스 와 역사적 비극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로맨스이다.

#### <저자 소개>

제니 글래드웰 (Jenny Gladwell)은 아동 도서 편집자로 일하던 중 문예창작을 공부했고 당시 제출한 논문으로 뛰어난 신예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인 소피 원 메모리얼 에세이 상 (Sophie Warne Memorial essay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BURIED DEEP  
가제 : 깊이 묻혀버린 진실  
저자 : T.R. Ragan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9년 4월 16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얹히고 설킨 완성도 높은 줄거리와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스릴러**

사립 탐정 제시 콜은 두 여성의 실종 사건과 명백히 자살로 끝난 듯한 한 남자와 관련된 사건을 동시에 맡게 되었다. 제시와 그녀의 친구 범죄 보도 전담 기자 벤 모리슨, 그녀의 조수, 형사인 남자 친구 콜린은 이 사건들을 파헤치던 중 점점 미국 속에 빠지게 되었다.

제시는 조수 지와 함께 사립 탐정소를 운영 중이었다. 제시 주변에는 지를 포함한 기자 친구 벤까지 다소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조수 지는 조현병과 환청에 시달리면서도 환청이 사라지면 홀로 너무 외로워질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기자인 친구 벤은 십 년 전 당한 교통사고로 사고 당시 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극도로 잔인한 범죄들에 대한 환각 같은 장면들은 여전히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상상인지 혹은 잃어버린 기억의 일부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일하고 있던 그녀의 사무소로 어느 날 페니라는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 여성은 30년 전 살해되었다는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아무런 죄도 없는 아버지가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어머니 에일린을 죽였다는 혐의로 1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지금은 그저 실종된 어머니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제시에게 아버지의 결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부모님이 예전에 주고받았다는 연애편지들을 제시에게 내밀었다. 제시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결코 자신의 아내를 죽일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판 당시, 페니의 외조부모님이자 에일린의 친정부모들인 두 부부가 대체 무슨 근거로 사위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는지 의문스러웠다. 제시는 이 사건을 맡기로 하고 지에게 사라진 페니의 엄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시켰다.

페니가 요청한 사건을 진행하던 중 사무소에는 또 다른 실종자와 관련된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 의뢰인은 한 변호사로 자신의 고객이자 실종자의 할머니인 한 노인이 남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실종자 ‘레이시’라는 여성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제시는 10년전,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집에서 나온 레이시가 그 후 한 남자와 결혼해 평범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녀가 결혼

기념일 즈음 또 한번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사건 당일, 레이시와 그녀의 남편 제이슨은 여덟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아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 제이슨이 마련한 리무진에 올라탔다. 차 안에 마련된 샴페인과 들뜬 분위기에 사로잡혀 신이 나있는 아내와는 달리 제이슨은 부인에게 마침내 털어놓아야만 하는 말들을 마음 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제이슨은 언제부터인가 그녀만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후로 은근히 아내를 밀어내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레이시 역시 자신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표정에 분명히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일찍이 눈치 챌 터였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에 성공하긴 했지만 기쁨도 잠시, 오늘 남편이 뭔가 중요한 발표라도 할 것 같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한 편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제이슨은 복잡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샴페인을 마시며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대뜸 레이시에게 자신의 잔을 들이밀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냄새를 인지할 수 없었고 여러 번 코를 잔에 들이 댄 후 그녀는 그 냄새가 욕실 세제 냄새와 가장 비슷한 향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시는 남편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레이시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기 위해 바쁘게 버튼을 눌러댔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운전수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입에 이상한 마스크를 끼고 있던 그 운전자는 그녀의 다급한 요청에도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순간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이 낯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제이슨은 점점 차갑게 식어갈 뿐 그녀의 비명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레이시는 서서히 자신의 몸에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 들었지만 그 순간 차가 갑자기 멈춰 섰고 그 바람에 차문에 몸이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다. 그때 레이시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운전자 귀에 걸쳐 있는 마스크를 벗겼다. 그러자 운전수는 재빨리 차 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레이시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차 천장 위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차 위에 올라탄 것이다. 레이시는 급정거와 후진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운전수를 결국 바닥에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지만 얼마 후 정신을 잃고 나무를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차로 달려온 그 운전수는 주먹으로 차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한편 제시의 남자 친구는 자살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 사건이 단순 자살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두 부부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벤의 환각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사건들에는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있는 것일까? 촘촘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줄거리가 돋보이는 스릴러이다.

#### <저자 소개>

T.R. Ragan (T.R. 레이건)은 뉴욕타임즈 및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2011 년 데뷔 후 그녀의 책은 이백만권 이상 판매되었다. 이 책은 제시 콜 시리즈인 『Her Last Day』, 『Deadly Recall』, 『Deranged』의 후속 작이다.

제목 : RABBITS FOR FOOD

가제 : 식용 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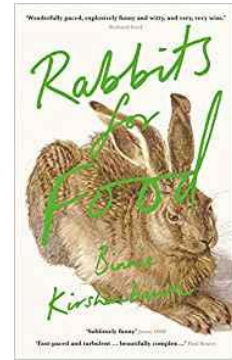
저자 : Binnie Kirshenbaum

출판사: Serpent's Tail

발행일: 2019년 11월 14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



★ 뉴욕 타임즈 북 리뷰 선정 2019년 주목할 만한 책

★ “마음의 병과 사랑,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너무나 웃기면서도 때론 가슴 아픈 이야기.”  
- 「뉴욕 타임즈」

★ “날카로운 통찰력과 신랄한 유머가 돋보인다.” - 「가디언」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버니’다. 이 이름은 별명이 아니라 진짜 ‘토끼’를 뜻하는 그녀의 본명이었다. 마흔 셋의 성공한 작가이자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버니는 공공로롭게도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동물학자인 남편 알비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니 부부는 새해 전야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허영심에 가득 찬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버니는 그만 마음의 중심을 잃고 말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칙칙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12월 31일 아침 9시 21분, 곧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다. 오늘 저녁 버니와 알비는 그들의 오랜 친구들인 트루디와 엘리엇, 줄리안과 리디아, 이 두 커플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애프터 파티에 함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실 이런 모임은 버니가 추수 감사절 모임 다음으로 가장 경멸하는 연례 행사였다. 버니는 왜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멀쩡하게 행동할 수 없는지, 왜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굳이 바깥으로 표출해야만 하는지 스스로조차 알 수 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집에서 책이나 읽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고, 바깥에 나가봤자 결코 자신에게 또는 타인들에게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즐거운 척, 재미있는척하며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들의 우정에 대해 사탕발림 같은 찬사를 보내고 가식을 떠는 일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버니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자정까지 있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바라보며 굳이 이 밤의 최악의 부분을 견뎌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파티에는 영화 제작자, 편집자, 건축가, 이론에만 빠져있는 영문과 교수들, 신경 과학자, 박물관 큐레이터부터 시작해 극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영리 단체의 관리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들은 하나 같이 자신의 직업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올해 버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하고 싶지 않았다. 버니는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모자란 잠과 허기

속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쓸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였고 그저 알비를 못살게 굴면서 흐느끼고만 있었다. 하지만 알비는 약속 시간이 되자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출발했다.

버니와 알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음식 평론가인 줄리안이 선택한 ‘레드몽키’라는 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세 커플들은 식당에서 파티 분위기를 낸답시고 손님들에게 나눠준 요란한 장식이 달린 빨간 모자를 썼다. 버니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사람들은 끝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늘어 놓고 있었다. 버니는 아시안 퓨전 음식을 먹으며 발사믹 식초 하나를 두고도 별별 이야기로 열정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힙스터 친구들의 모습과 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는 식당 바닥 밑으로 오가는 형형 생색의 관상용 물고기들을 지켜보면서 대체 언제쯤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아홉 시 반이 되자 버니의 신경은 사람들이 낀 팔찌들이 내는 짤랑 거리는 소리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고 식사로 나온 모든 음식이 두부로 되어있다는 사실에 식욕조차 뚝 떨어진 상태였다. 버니가 원하는 것은 그저 모두가 조용해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는 듯이 주먹을 꼭 쥐고 테이블을 내리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포크를 들어 그녀의 허벅지 안쪽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마구 찔렀다. 그러자 그녀의 드레스가 와인처럼 빨갈게 물들어 갔고 놀란 사람들은 그녀를 말리기 위해 그 주변을 에워쌌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버니는 정신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감옥 같은 그런 끔찍한 장소가 아니라 미용, 요가, 예술 및 공예품 만들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치료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는 동물 테라피의 일종인 개와 함께 어울리는 치료법도 있었는데 버니는 이 치료 활동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버니는 곧 개가 올 것이라는 간호사의 말대로 개가 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개는 오지 않았고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오늘 개가 병원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얼마 후 버니는 다시 개와 함께 하는 치료 활동에 자원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를 기다렸지만 결국 이번에도 개는 오지 않았다. 버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치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처럼 하염없이 개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버니는 개를 기다리는 일과 이 병원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생활이 지겨워지자 시간이라도 때우기 위해 다시 펜을 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버니는 조금이라도 이 지옥 속에서 자유로워지게 될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한 인물의 시선을 따라 때론 잔인하기까지 한 냉혹한 현실,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를 담은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버니 키셴바움 (Binnie Kirshenbaum)은 『Mermaid Avenue』, 『Hester Among the Ruins』 등의 저자이며 이 소설들은 시카고지의 올해의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목 : GHOSTS OF THE MISSING

가제 : 사라진 자들의 영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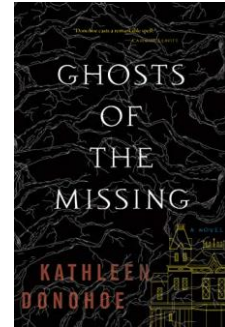
저자 : Kathleen Donoho

출판사: Mariner Books

발행일: 2020년 2월 1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한 가족에게 내려진 저주에 가려진 진실과 신비로운 이야기가 인상적인 소설"- 「커커스 리뷰」

한 마을에서 열리 행진 행사에서 열두 살 소녀가 실종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소녀의 친구였던 어데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아이를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언제나 어데어 주변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의 실종과 어데어의 가족 사이에는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오래된 연결고리가 있었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 그 여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1844년 10월 어느 가을 날, 열두 살 커셔스 모에는 집 뒤편 예배당 근처 숲에서 산딸기 열매를 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처음으로 마가목(馬加木) 사이에 서있는 그 여자를 보았다. 스무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붉은 머리카락과 옷차림, 머리스타일로 보았을 때 분명 아일랜드 출신 하녀인 것 같았다. 커셔스는 숲 속에 어둠이 내리기 전 그 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 여자의 존재를 금방 잊고 말았다. 하지만 갑자기 예배당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커셔스가 마가목에 가까이에 갈수록 그 종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커셔스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10년 3월, 어데어는 어린 시절부터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며 겨우 어른이 된 여자였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부모님과 함께 타고 있던 자동차에 불이 나는 바람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차 안에서 구출된 적도 있었고 남들은 평생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백혈병과 뇌종양을 앓은 적도 있었다. 또한 그녀가 열두 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로완이 갑자기 실종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했었다. 4년 전 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던 그녀는 요즈음 다시 자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을 감지했고 이 곳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고향은 ‘쿨레톤’이라는 마을로 뉴욕에서 차로 두 시간 정도 떨어져있는 마을이었는데 예전부터 그곳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특유의 묘한 분위기 때문에 여러 미스터리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었다. 또한 쿨레톤에는 작가들이 모여 사는 ‘모에 하우스’라는 특별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은 원래 작가 커셔스 모에가 나고 자랐던 생가로 그가 남북 전쟁에 참여하기 전까지 소설 집필을 했던 곳이었고 어데어 가족이 물려 받은 유산이기도 했다. 어데어는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브루클린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 어데어는 이웃 에밀리의 집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에밀리는 육아의 고단함을 토로하면서 어데어에게 그녀에게도 어린 시절 겪었던 일로 인한 트라우마가 없는지 물었다. 어데어는 에밀리에게 어린 시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로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95년 10월 28일 토요일 로완의 엄마는 로완과 아직 갓난아기인 막내 딸을 데리고 할로윈 기념 행진 행사에 갔다. 그 당시 그 작은 마을엔 마을 사람들 외에도 엄청난 이방인들이 몰려들었고 그 틈에서 로완은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어데어는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로완의 실종 전단지를 볼 때마다 사진 속 그녀의 앞머리를 쓰다듬었고 전단지가 상하거나 색이 바래면 다시 애써 고쳐 놓곤 했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어데어는 놀란 에밀리를 바라보다가 에밀리네 집 계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난간 사이로 어데어를 뵈히 바라보고 있는 로완의 얼굴을 발견했다. 로완은 그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 어데어가 보았던 그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고 같은 반 아이들이 놀려 댔던 사각 안경태를 여전히 쓰고 있었다. 어데어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 속으로 남의 집까지 쫓아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속삭이자 로완은 생전에 엄마의 화를 더 돋우기 위해 사용했던 그 특유의 표정으로 어데어를 바라보았다.

로완이 사라지고 난 후, 경찰들은 여러 차례 마을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로완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모에 하우스 뒤 편 숲에는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원래는 그 지역에 기차길 공사 현장이나 주조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 온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만든 카톨릭 교회였지만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원래 있었던 종만 남겨두고 19세기 말 더 웅장하고 화려한 개신교 교회 건물로 탈바꿈 된 곳이었다. 사람들은 사라진 아이가 혹시라도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그 종소리라도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그 종을 울려댔고 며칠 동안 수 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숲 속을 뒤흔들고 다녔다. 하지만 로완은 오직 어데어의 앞에만, 그것도 유형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어데어는 에밀리의 집을 떠나 바깥으로 나왔다. 그때 그녀의 앞으로 한 사제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 사제는 곧 어데어 쪽으로 쓰러질 듯했고 에밀리는 간신히 그를 피한 후, 공기 중에 잔 물결이 일더니 그가 곧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어데어는 자신에게 매일 같이 벌어지는 이 현상이 대체 무엇인지 혹은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곤 했지만 답을 찾진 못했고 오직 자기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작가들이 머무는 특별한 장소가 된 그녀의 집으로 돌아온 어데어는 로완의 이복남매이자 로완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작가 시어런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로완과 함께 묻혀 버린 진실을 파헤쳐 가던 중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족의 기나긴 역사와 관련된 사실들을 알게 된다. 과거와 현재, 진실과 사람들의 믿음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미스터리하면서도 아름다운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캐틀린 도노호 (Kathleen Donoho)는 *Ashes of Fiery Weather*의 저자이며 워싱턴 스퀘어 리뷰와 아메리칸 아이리시 매거진등에 단편과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 NON-FICTION

제목 : BE A STARTUP SUPERSTAR

가제 : 나도 스타트업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저자 : Steven Kahan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9년 12월 5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경영



**\* 스타트업의 세계에 진출하고 싶은 구직자 및 차기 리더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는 책.**

혹시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기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책이 곧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한 IT 보안업체의 최고 마케팅 경영자이자 스타트업의 붐이 일어나고 있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곱개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스타트업 전문가인 스티브 카한이다.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회사 생활에 그다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을지라도 과감히 IT 관련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들어 경력을 쌓아보기를 추천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 젊은 구직자들은 그저 매일 같이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일반 적인 회사 업무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에 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기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조차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얼마든지 성공적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 역시 원래는 월 스트리트에 위치한 유명 투자 회사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안전한 직장을 버리고 스타트업 회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 후, 여러 스타트업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냈다.

이 책은 크게 1, 2부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1부에서 저자는 스타트업 기업에 찾고 있는 인재상과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지 알려준다. 또한 구직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특징을 알려준다. 그 다음 2부에서는 스타트업 업계에 도전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와 스타트업 업체들과 같은 신생기업과 기존의 대기업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특성들이 회사의 리더들의 결정방식과 경영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한다. 또한 우리가 결코 대학이나 취업교육센터에서는 배울 수 없을 법한 스타트업의 내부 문화와 분위기에 대한

생생한 설명과 실무지식들을 알려준다. IT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안내서이다.

## <목차>

### 1 부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다.

#### 1 장 :기술 업계에 찾아온 스타트업 붐을 활용하라

기술 업계에 있어서 전례가 없던 기회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

낮아진 진입 장벽

다양한 역할

리더가 되기 위한 발판

경제적 보상

문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 2 장: 나와 궁합이 잘 맞는 회사 선택하기

스타트업 업계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온라인 광고에 주목하라

엑셀레이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함)들의 도움을 얻어라

(이하 생략, 총 9장 구성)

## <저자 소개>

스티븐 카한 (Steven Kahan)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IT 보안 회사인 'Thycotic'의 CMO (최고마케팅 경영자)이다. 그는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7 개의 스타트업 회사를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주주 가치 30억 달러 이상을 달성시킨 장본인이다.

제목 : IN PRAISE OF WILDER LIVES

가제 : 야생적인 삶에 대한 찬사

저자 : Marian Donner

출판사: Dutch Mag

발행일: 2019년 6월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심리



**\* "끊임없이 자신을 최적화하라는 신 자유주의적 압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열정적인 선언문"- 「HUMO」**

자기계발 산업은 오늘날 가장 잘나가는 국제적인 산업 중 하나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자기계발서들이 거의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고 유튜브 채널이나 TED 강연까지 등장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마치 폭탄처럼 마구 우리 일상 속에 쏟아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각자 집을 말끔히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잘 버리고, 스마트폰 대신 명상에 집중하고 실패는 교훈으로, 문제는 도전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인생이 별 탈 없이 평탄하게 굴러갈 것처럼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말들에 매혹되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장애, 번아웃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마ريان 도너는 바로 이런 책들과 강연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며 변화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자기계발적 사고가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일 앞에서든 자신 있게 행동하라는 말에 속아 상사와의 문제도, 이혼으로 겪고 있는 스트레스도 전부 무시하고 오직 긍정적인 생각에만 집중하며 억지로 감사일기를 써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불안과 분노를 껍껍 눌러 담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계발 지식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결코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없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응어리가 폭발이라도 하는 날엔 사람들은 자기계발적인 사고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재차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악순환은 소셜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결합하여 더 공고해질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고방식과 태도는 전혀 우리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니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기계발서의 폐해는 비단 개인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외부적 문제를 회피한 채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다 보면 진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정치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게 되고 우리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단순히 자기계발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울증 약이나 아보카도 스무디, 요가, 감사 일기 따위가 아니라 세상을 정확히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라고 주장한다.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 나고 더러운데다 엉망진창인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 <목차>

서문

1장. 냄새 풍기기

2장. 마시기

3장. 피 흘리기

4장 불 태우기, 춤추기

#### <저자 소개>

마리안 도너 (Marian Donner)는 사랑과 열정의 본질에 관한 논문을 쓴 심리학 전공자이며 정당과 NGO 단체에서 일한 바 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의 한 에이전시의 접수원으로 직업을 바꿨고 그 일을 계기로 새롭게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

제목 : HOW HUMANS SURVIVE HUMANITY

가제 :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저자 : Dr Ayana Johnson

발행일: 2020년 4월 22일 예정

분량 : 250 페이지

장르 : 환경



**\* 기후변화가 닥쳐온 세상에서도 여전히 인간이 인간답게 자연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살펴보는 책.**

최근 들어 전세계 학자 및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문제와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대한 전망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기후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늦추거나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미 기후 변화를 일으킨 주범이 되었고 지구상에서 번성하고 있던 수많은 종들을 멸종시켰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아야나 존슨 박사는 매일 이러한 사실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도 우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분노하고 더욱 단단히 마음을 다 잡으면서 큰 동기 부여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존슨 박사는 미래를 암울하다고 단정짓기보다는 이 상황에서도 대안적 미래를 꿈꿔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는 환경 보전이란 물고기나 나무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바로 인류 그 자체의 생존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류에게 있다면 그 해결책도 인류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저자는 자연은 우리 생각 보다 훨씬 더 유연한 회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극적인 변화 속에서도 자연은 이 세계의 새로운 질서에 맞춰 성장하고 다시 균형을 맞춰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의 건강 상태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달리 '좋다, 나쁘다'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후 변화 때문에 행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인류는 분명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해있다. 하지만 존슨 박사는 기후변화 현상을 단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목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대신 과학, 정책 및 문화를 통합하여 자연과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훌륭한 방안들로는 지역사회 별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농업과 어업을 활성화시키고 재난 대응에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부터 기후 정의 운동을 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중 일부는 이미 실전 상황에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결코 희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순진한 책이 아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12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위험에 처한 생물 다양성, 기업의 이기주의,

불평등 문제, 정치집단의 폭력성에 대해 짚어보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공공정책, 기업 관행 및 인간 행동에 어떤 변화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즉, 이 책은 무조건 희망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주장하는 책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들과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과학적 이론, 행동주의적 시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책이다.

### <목차>

서문: 바다와 사랑에 빠지다

머리말: 우리 미래는 얼마나 답이 없는 상태인가?

- 1 장. 존중
- 2 장. 다양성
- 3 장. 보존
- 4 장. 복구
- 5 장. 과학
- 6 장. 플라스틱
- 7 장. 식품
- 8 장. 도시
- 9 장. 섬들
- 10 장. 이주
- 11 장. 과학
- 12 장. 문화
- 13 장. 커뮤니티

### <저자 소개>

아나야 존슨 박사 (Dr. Ayana Johnson)는 해양 생물 학자이자 정책 전문가, 환경 보존 전략가, 작가이다. 존슨 박사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실행하기 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오션 콜렉티브 (Ocean Collective)의 창립자이자 CEO이며 해안 도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인 어반 오션 랩 (Urban Ocean Lab)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학문 기관에서 차세대 해양환경전문가들을 양성 중이다.

제목 : SHERLOCK PUZZLES: MATH & LOGIC GAMES / SHERLOCK PUZZLES: CODE BREAKERS

가제 : 셜록 홈즈 퍼즐: 수학과 논리게임 / 셜록 홈즈 퍼즐: 코드 해독하기

저자 : Pierre Berloquin

출판사: Wellfleet Press

발행일: 2020년 5월 12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여가



★ 최근 트렌드에 맞춰, 초보자부터 고단수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까지 즐길 수 있는 세분화 된 난이도로 구성 된 두뇌 활용 게임북.

## 1. SHERLOCK PUZZLES: MATH & LOGIC GAMES

이 책은 문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해결사 셜록 홈즈와 함께 무려 100 개가 넘는 수학 문제와 논리 퍼즐을 풀어가면서 우리 두뇌의 잠재력을 끌어 올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 해보기에 안성맞춤인 책이다. 독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모노그램이 삽입된 이 퍼즐북은 독자들은 흥미로운 시각 자료들을 따라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도전자들은 격자 무늬들에 맞춰 하나씩 정확한 그림을 채워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역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논리 퍼즐은 연역 능력을 활용해 미로의 규칙을 파악하고 주어진 가정을 활용해 삼단 논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도록 게임이 짜여있다 이어, 논리 격자 퍼즐에는 각각 특정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되는데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게임 참여자들이 각자 파악한 단서들을 이용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뇌 게임에는 이뿐만 아니라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여러 흥미로운 두뇌 운동 게임이 수록 되어있다.

## 2. SHERLOCK PUZZLES: CODE BREAKERS

코드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코드들을 통해 우리는 수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을 이루어왔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도 코드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메시지들을 상대방과 주고받아왔으며 코드는 하나의 종교적 예술적 취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20 세기 이후 코드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넘어 그 자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드는 컴퓨터 바이러스, 로봇의 두뇌 또는 군사용 드론의 형태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중이다. 이 변화 속에서 코드는 우리의 지능을 시험하고 이 광대한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다. 하지만 코드는 과연 어렵기만 한 것일까? 이 코드가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놀이 도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책에서 독자들은 놀이와는 동떨어져 보였던 코드의 세계로 직접 빠져 들어 셜록 홈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100 가지 이상의 코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암호화된 이야기들을 해독해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50 권이 넘는 게임북을 제작한 바 있는 저자 피에르 베를로퀀의 신작인 이 두 권의 게임책은 디지털 시대에 찌든 우리 두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IQ 지수 향상, 인지력 및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과 셜록 홈즈라는 인기 추리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문제들을 도입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책이다.

#### <저자 소개>

Pierre Berloquin (피에르 베를로퀀)은 작가이자. 퍼즐, 보드 게임 및 멀티미디어 게임의 제작자 및 디자이너이자 창의력 컨설턴트이다. 프랑스 파리의 에콜 드 미네스 (École des Mines)에서 수학한 후, 동대학에서 컨설턴트 및 교수로 재직하면서 논리와 수학을 활용한 게임 전문가가 되었다. 그가 출판한 퍼즐북은 50권에 달한다.

제목 : ENTANGLED LIFE: How Fungi Make Our World, Change Our Minds and Shape Our Futures

가제 : 곰팡이 이야기: 곰팡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우리의 정신과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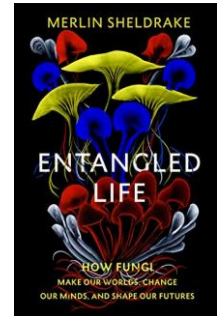
저자 : Merlin Sheldrake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20년 5월 12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에세이, 과학



★ "우리의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다 줄 눈부시고 생생한 책.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난 잠시 멈춰야 했고 곰팡이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버렸다. 경이로운 작가가 쓴 경이로운 책이다." - 『Underland』의 저자, 로버트 맥팔레인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고 경이로워서 과연 이 생물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 이것은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며 지구상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몸과 공기 중에서도 발견되는 생명체이다. 이것은 아주 미세한 존재이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유기체중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이 지구 상에서 살면서 수만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단단한 암석까지 거뜬히 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덕분에 이 생명체는 지구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가장 먼저 육지에 정착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 생명체는 생명체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알려진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모든 생명체들을 말살시켜버리는 핵 방사선 속에서도 문제없이 무한히 번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위대한 생명체는 바로 곰팡이다. 곰팡이는 어디에나 있는 흔한 존재이지만 우리 시야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곰팡이는 우리 주변 그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다. 곰팡이는 지난 10억 년 동안 그래왔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곰팡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바위뿐만 아니라 토양과 오염물질을 먹어 치우고 식물의 성장을 돕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음식과 의약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곰팡이는 동물들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지구 대기 구성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곰팡이 종은 무려 90 퍼센트에 달한다. 이 책의 저자 멀린 쉘드레이크는 인류는 곰팡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인간의 사고 방식, 감정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산문으로 가득한 이 책에서 그는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으며 끝없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미지의 존재의 비밀이 숨겨진 세계를 탐험한다.

곰팡이들은 두뇌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성의 개념까지 뒤엎는 생명체이다. 곰팡이는 빵, 알콜 음료부터 시작해 약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곰팡이가 인간의 체내에 흡수될 경우, 환각 증상이나 정신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플라스틱, 폭발물, 살충제, 원유까지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곰팡이는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곰팡이는 지하 세계에서 식물과 식물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는 기존의 생태계 연구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시적인 문체와 과학적 사실들을 통해,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곰팡이들의 놀라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 <저자 소개>

머린 셸드레이크 (Merlin Sheldrake)는 생물학자이자 작가이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열대 생태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나마 열대 숲에서 지하 곰팡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연구한바 있다. 이 책은 그의 데뷔작이다.

제목 : HAPPY FAT

가제 : 뚱뚱한 게 뭐 어때서

저자 : Sofie Hagen

출판사: Fourth Estate

발행일: 2020년 4월 7일

분량 : 337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이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 저자 소피 하겐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다." -배우 리나 던햄

★ "나는 이 책의 모든 페이지를 다 끌어안고 싶을 정도로 이 책을 사랑한다. 비만인으로서 경험하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사랑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기쁨에 관한 책이다." - 코미디언 헬렌 썬

아무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소위 이 사회에서 뚱뚱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압박은 여전하다. 최근 들어서는 남성들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높아진 외모 기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하지만 뚱뚱한 여성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훨씬 더 가혹한 편이다. 충분히 날씬하다 못해 마른 장작 같은 몸을 가진 연예인조차 화보에서 뺄살이 보인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뚱뚱한 몸과 지방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뚱뚱한 몸과 뺄살마저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책의 저자 소피 하겐은 지방은 절대 부정적인 상징이 아니며 오히려 그저 다른 것들처럼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녀는 마른 몸과 마찬가지로 뚱뚱한 몸 또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남들보다 큰 몸집과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살면서 저자 역시 이런 생각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세상의 편견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기도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뚱뚱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몸, 타인의 몸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살면서 단 한번도 마른 몸으로 살아 본 적이 없다는 그녀는 비만 아동으로 성장해, 비만 청소년, 비만 성인이 되면서 겪었던 일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에 더해 그녀는 자신이 직접 시도해보았던 식이 요법과 실패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모욕과 트라우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비만인의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책은 단순히 '우리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여러 매체에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를 방영하고 그들 또한 마른 연예인들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잡지에 등장하게 된 것도 유의미한 변화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도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다. 게다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서는 마르고 날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예찬하고 그들의 미를 동경하는 대중들은 자신의 몸을 더욱 구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소피 하겐은 이 책에서 다양한 인종과 성적 정체성 혹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비만인들과 만나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뚱뚱한 사람들이 비행기 좌석, 공중 화장실과 같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겪는 곤혹스러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섹스와 연애에서 겪는 수치심, 부끄러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유용한 팁들을 알려준다. 비만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재발견할 수 있는 책이자, 여러 고충을 겪고 있는 비만인들을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이다.

## <목차>

머리말

1부.

1장. 내 뚱뚱한 몸

2장. 우리에게 뚱뚱한 디즈니 공주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공주를 보게 될까?  
(스테파니 예보아)

3장. 뚱뚱한 사람들은 공중화장실 및 다른 장소 들에서 갇히는 순간이 있다. (디나 암룬드)

4장. 거의 오렌지색 옷만 게 괜찮은 일인 걸까?

5장. 사랑과 우정. 빌어먹을 뚱뚱이

6장. 당신이 저울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이유 (키반 베이)

7장. '근데 건강은 괜찮은 거야?' '그냥 닥치는 게 어때?' (마틸다 이비니)

## <저자 소개>

소피 하겐 (Sofie Hagen)은 코미디언이자 활동가, 작가이며 2015 년 에딘버러 프린지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팟캐스트 진행자이다. 또한 영국과 유럽의 주요 방송사의 유명한 TV쇼 및 TEDx Talk에 출연한 바 있으며 가디언, 허핑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 하고 있다.